



‘손바닥안의 우주’
 마티유 리카르·트린 투안 주안 지음
 이용철 옮김
 창작과 비평사 / 2만원



불교와 과학 그 연관성을 밝힌다

현대물리학과 불교가 대화의 장에서 만났다. 베트남에서 불교도로 태어나 미국에서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트린 주안 투안 (Trinh Xuan Thuan·사진 오른쪽)과 프랑스에서 태어나 세포 유전학 분야의 과학자로 일하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티베트 승려가 된 마티유 리카르(Mathieu Ricard·왼쪽) 스님. 이 책의 대담자로 나오는 두 저자는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불교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물리학의 다양한 불교적 연관성이 논의된다.

두 사람은 우주 복사와 빅뱅, 우주의 기원, 우주 팽창, 우주의 진화, 우주의 모습, 원자론, 푸코진자, 마흐의 원리, 괴델의 정리, 초끈이론,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 비선형성, 창발, 인공지능, 환원주의를 이야기한다. 이 대담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우주론과 불교의 세계관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담의 목적은 마티유가 밝힌 것처럼, 주관적

경험을 고려하는 삶의 개념에 과학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읊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다보면 물질의 세계와 정신세계는 결국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수 없으며, 두 분야의 연관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만이 궁극적인 진리라는 게 마티유의 설명이다.

스님·물리학자, 빅뱅-우주기원 등 대담

현대물리학의 모순 불교서 해답 찾아

이를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공통분모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한 이 대화를 통해 과학은 불교가 관념적이며 비실재적이라는 오해를 풀었으며, 불교는 과학이 직면한 모순들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과학은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

에게 제공할지, 상상적인 방법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과학의 기본 구조에 의거해 우리

에게 해탈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아(無我)이고, 무상(無常)이며, 공(空)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실재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재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게 마티유의 설명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임재해 지음
 당대 / 1만4천원



생태민속학 새 학문적 토대 정립

현대의 학문적 사상적 추세를 대표하는 분야는 바로 생태학이다. 극단에 이른 산업화와 인간 중심의 사고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시작된 생태학은 이제 생물학의 한 지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을 진단해 보는 철학적 명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자들의 범주를 넘어 많은 기업들까지도 생태학적 사고를 회사 운영과 광고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은 지 오래다.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한 제 3민속학 즉 생태민속학은 그가 독자적으로 이룩한 민속학의 생태학적 논리와 그 학문적 수준을 보여주는 야심찬 저작이다. 이 책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된 생태학적 존재라는 점을 우리 민속학을 통해 예

에까지 영향을 끼쳐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혁시키겠다는 단호한 실천적 결의까지 보여준다.

셋째, 이 책에는 학자가 오랜 기간을 두고 고집스레 추구해온 학문적 경향이 묻어나 있다. ‘우리말로 학문하기’란 단체에서 활동하며 언어주권을 제창한 학자답게 고루한 학문적 체취나 강단의 학술서가 보여주는 경직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문학과 민속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앉은 자리에서도 많은 양을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다.

넷째, 민속학자로서 자신의 세계관을 역사인식을 제시하는 담당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민중적 가치, 민주적 가치, 생산적 가치, 공생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특히 강조하려는 초점은 공생적 가치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민속학의 시대구분을 주술의 시대, 예술의 시대, 변혁의 시대, 공생의 시대로 나눈 논리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혼란의 시대가 가져온 생명모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생적 가치관’만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분명한 자기 주

한국민속의 생태적 의미 규명·이론화

관을 민속학 연구에 도입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농촌문화, 민속사의 시대구분, 민속문화, 풍수지리설, 민속신앙 등에 나타난 생태적인 인식과 자연관 및 공생적 문제를 다룬 새로운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생태민속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제기하며 ‘알과 삶이 함께 가는 생명운동’이라는 머리말의 부제를 통해 저술의 서술방향과 그의 생태학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생태학적 논리와 이론을 많은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지만 정작 학문적 성과물로 승화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이 책은 민속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과 연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생태민속학의 뚜렷한 학문적 저작으로 인정된다.

둘째, 민속학이 그동안 옛것에 대한 취향과 관심 속에 민속자료를 연구 분석해서 이론화하는 강단위주의 학문적 경향에 충실했다면, 그는 한국민속에 나타난 생태학적 인식과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론화하였다. 아울러 생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감동을 타인과 사회

관을 민속학 연구에 도입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농촌문화, 민속사의 시대구분, 민속문화, 풍수지리설, 민속신앙 등에 나타난 생태적인 인식과 자연관 및 공생적 문제를 다룬 새로운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생태민속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제기하며 ‘알과 삶이 함께 가는 생명운동’이라는 머리말의 부제를 통해 저술의 서술방향과 그의 생태학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가 이룩한 이 같은 학문적인 업적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남아 있다. 오래된 것일수록 오래 가고, 첨단적인 것일수록 장래가 불투명하며, 가장 혼란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학문적인 증명에 전제된 논리보다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정서적 메시지이다. 또한 생태학 중심주의는 생태학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모든 갈등과 모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논리로 비약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생태민속학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강석근 / 동국대 강사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은 과학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이 생태론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 민속문화의 사대인 농촌문화, 민속사의 공생 등을 예증 삼아 명쾌하게 입증했다.

일방주의적 언론개혁 경계

언론과 권력이 다루는 장면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언론과 싸움을 벌였으며, 현재 노무현 정부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이 책은 언론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와 난타전을 추적 조사했다. 이로 인해 언론개혁의 주된 논쟁이 미국 강경 보수주의의 ‘일방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새로운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경제 일방주의의 대표적인 ‘통화 종속주의’를 보다 강화하게 되며 언론개혁이 신문의 본질을 벗어나면서 결국에는 보수주의자들의 일방주의에 편승하고, 이는 다시 한국의 일방주의를 강화해 국제적 통화전쟁에 앞장서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교신문 논설위원이기도 한 저자의 오랜 언론 경험 이 이 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이건 권력이건 진보의 잣대는 인권과 편견에서 찾아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절대주의로 변색시키는 것이 문제의 화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언론전쟁을 통해 오히려 ‘일방주의의 급부상’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언론 개혁의 본질은 신문시장에 대한 가치관이 쥐고 있다”며 “서구언론은 언론인의 취재능력과 언론보도의 가치가 언론의 평판을 좌우하지만 한국은 기형적 시장에 의거해 중앙 정치권과 행정부가 좌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언론전쟁’

김종찬 지음
 새로운 사람들 / 1만2천원



‘T.S. 엘리엇과 불교’
 PS 스리 지음 / 정갑동 옮김
 동인 / 1만3천원

불교관련 엘리엇의 시 해석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황무지’의 저자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T.S.엘리엇. 이 책은 엘리엇의 시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모았다. ‘황무지’, ‘네 사중주’, ‘카테일 파티’는 인도사상 특히 불교사상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작품들이다. 그래서 엘리엇의 문학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 한다면, 동서양 철학 사상의 거대한 강줄기가 그의 정신세계에 합류하여 풍요로운 작품세계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이 책은 알려준다. 예를 들어 ‘황무지’의 제 3부에서는 ‘불의 설교’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는 특히 대품(大品)의 ‘부처님의 불의 설교’를 상기시키고 있다. 엘리엇 자신도 ‘이 제목은 부처님의 불의 설교에서 취한 것인데 그 완전한 텍스트는 서양불교연구의 선구자였던 고(故) 헨리 크라크 우오런의 <연의불교>에서 따온 것이다’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꽃이 가벼이 가벼이 솟아오르며’에서와 같이 ‘네 사중주’의 첫째 시 ‘버인트 노오른’에는 불교사상의 궁극적 실재의 상징인 연꽃의 인용이 있다고 저자는 소개한다.

역시인 정갑동 교수(동국대 영문과)는 “동양사상, 특히 인도사상 중 불교사상을 접목시켜 학문 연구의 폭과 질을 높여간다면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일반독자들이 엘리엇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악마는 수행자를 끝없이 유혹한다.

“누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오?”
 “어진 이에, 번뇌를 멀리 여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이여, 이 세상에는 번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멀리 떠나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사랑이나 나누면서 즐겁게 삽시다. 늙으면 후회합니다.”

“나는 이미 수없는 생애 동안 슬한 자식을 읽어왔고 또 슬한 남자와 헤어진 적이 있으므로 이제 남자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이 없노라. 나는 모든 애욕의 고통을 떠났고 무지의 무지를 버렸노라. 번뇌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번뇌의 불꽃을 잡았노라.”

악마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도 번뇌망상과 이별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악마는 갖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행자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위협한다.

윤창화 역음/신국판 변형, 223쪽/값 7,000원

근본불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서.

근본불교 불교입문총서 1

진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세존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가르쳤다. 후대의 불교는 세존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세존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의 근본이므로 ‘근본불교’라고 해야 한다. ‘원시불교’라는 명칭은 세존의 가르침을 소박하고 유치한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종표 지음 / 신국판 294쪽 / 값8,500원

대승불교와 관련하여 소승불교비판으로부터 전개되는 불교입문서의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아비달마불교 불교입문총서 3

불타의 팔만사천 법문은 말 그대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불타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교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논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기의 불교를 아비달마불교라 한다.

권오민 지음 / 신국판 367쪽 / 값9,000원

악마, 부처님을 유혹하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망장,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하나?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일지·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 320쪽 / 값 7,5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망장,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하나?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일지·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 320쪽 /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망장,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하나?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성우·석지현 역음 4×6판 양장 / 180쪽 /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출판 윤창화 역음 신국판 216쪽 / 값 6,000원

법보사 주문을 받습니다.